

해체, 충돌 그리고 확장

단수민 개인전

@soomin_dhan

22.10.4(Tues) - 10.13(Thu)

11:00-19:00

대통길 작은 미술관

(충남 공주시 반죽동 191-5)

작가는 '기억이 각자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'와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평면회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풀어낸다. '구상과 추상을 한 화면 속에서 충돌시킬 수 있을까?'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대상의 형상을 그린 뒤 여러 번 덧그리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기존의 이미지들이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. 이러한 작업은 멀리서 보면 '무언가'를 보여주지만, 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'무언가'는 보이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.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대를 일으키지만 그 기대를 결코 충족시켜주지는 않는다.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,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'어중간한'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작업을 통해 보여주려 한다.

첫 개인전에서 각기 다른 소재를 그려낸 두 작품을 'L'자 형태로 설치한 적이 있었다. 즉흥적인 요소로 설치되었던 이 작품들을 보면서 문득 '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불규칙적으로 이어붙인다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될까?'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이후 새로운 공간을 마주할 때마다, 각 공간에 맞는 설치방식을 찾도록 시도해왔다. 이번 전시는 작가의 기존의 고민이었던 '한 화면에 구상과 추상의 충돌을 보여줄 수 있는가?'라는 질문과 함께 별개의 작품들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려 한다.

본 전시는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.



충청남도



충남문화재단



대통길작은미술관